

철강재, 1~2월 건자재가격 인상 견인

3월 철근 판매량 역대 월간 최고치... 경기 최선행 품목 콘크리트파일 판매량·가격 주춤 주목돼

골재, 레미콘 수급난이 심각한 가운데 철근 등 철강재의 올해 가격 상승세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건자재가격 인상을 사실상 견인했고 지금도 오름세가 견조하다.

건설업계로서는 전체 자재비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양대 핵심자재(철근, 레미콘)의 동반 오름세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어 답답한 처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놓은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면 1월 120.41과 2월 120.47로 지난해 12월(118.08)과 비교해 1.97%와 0.05%씩 올랐다.

지수 상승세의 자재 분야 진원지는 철강재 등 금속제품이었다.

전월 대비 가격 상승폭 1위 품목은

열연강판으로 11.7%나 올랐다. 아연도강선(9.8%), 조립식건축용 금속패널(8.7%), 아연도금강판(7.6%)이 3~5위였다.

냉간강조용 강선(5.9%), 아크용접강판·보통강선재(각 5.4%), 냉연전기강판(5.2%), 스테인리스 냉연강판(4.7%), 전기용접강판(3.7%), 건축용 관급제품(3.6%), 알루미늄 새시바(3.4%), 중후판(3.4%), 컬러강판(3.3%)도 20위권에 들었다.

1월 가격 인상을 20위권 품목 가운데 병크C유(10%), 휘발유(6.8%), 경유(5.9%), 등유(4.7%), 축량비(4.1%)를 뺀 나머지를 철강재 등 금속재가 차지했다.

2월에도 중후판과 열연강판의 가격 상승률이 각각 8.2%로 동관(17.9%)에 이은 공동 2위였고 아연도금강판(4.4%), 전기용접강판(2%), 컬러강판

(1.8%) 등이 가격 급등 20위권 품목에 이름을 올리는 등 철강재 강세현상이 지속됐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근의 가격도 건설, 제강사 간 협정가격이 작년 4분기 58만5000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3만5000원 오른 데 이어 2분기 다시 1만5000원 오른 63만5000원이다. 불과 3개월 만에 5만 원이나 급등했다.

연간 철근 사용량(약 1000만t)을 감안한 건설업계의 추가부담액만 5000억원이다. 수급도 어렵다.

동절기를 감안해 7대 철근 제조사들이 책정한 1분기 판매 목표량은 243만t이었지만 판매실적은 256만t으로 13만t이 많았다. 3월 판매량은 역대 월간 최고치인 100만t이었다.

건설자재회 관계자는 "남초 2개 분기 연속 철근가격 인상은 있을 수 없

다는 방침 아래 동절 입장을 고수했던 우리 업계가 서둘러 인상에 합의한 이유는 시간을 끌면 팔수록 더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재고와 수입이 급감하면서 4월의 철근 판매 속도는 3월보다 빠르다. 건설경기가 주춤해지고 착공량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길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건자재 품목 가운데 경기 최선행 품목으로 꼽히는 콘크리트파일의 판매량과 가격이 주춤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콘크리트파일 수요가 급감하면 다음 수순은 레미콘, 철근이다.

실제 건설연의 자재가격 조사에서도 콘크리트파일의 가격은 1월과 2월 각각 2%와 1.9%씩 떨어졌고 지금도 초약세란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은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와 25일 우정청 라이브 Post홀에서 양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우정청-중기융합전북연, 판로개척 업무협약

전북우정청은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와 25일 우정청 라이브 Post홀에서 양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우체국은 우체국 소평,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상공인 정기예금 등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자신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북우정청은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고도 편리한 광고우편서비스를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숙박업 '후기 조작' 제재

여기여때·야놀자·여기야에 시정명령·과태료

여기여때, 야놀자 등 모바일 숙박업 사업자들이 나쁜 후기는 감추고 광고 상품을 추천상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위드노베이션(여기여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업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여때와 야놀자는 후기 감추기 등 소비자 기간에 앞장섰다.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최소 상태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올려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여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5952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의 후기를 비공개로 풀었다.

이들은 공정위가 사건심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멈추고, 공개 처리했다.

광고상품을 추천상품인 것처럼 속인 행위도 적발됐다.

여기여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업체는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추천' 표시하거나 숙박업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특히 여기여때는 '내 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광고 상품으로 이끌었다.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이 광고상품을 구입한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역시 공정위 사건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여기여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는 사이버불신정보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뒤늦게 시정됐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모바일업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중 숙박업에서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 과장된 표현이 많이 발견돼 조사를 시작한 사항"이라며 "숙박업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숙박업 사업자들의 기반적 유인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원 13명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농촌진흥청은 제50회 과학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표창 10점 등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 수상자는 대통령표창에 국립식량과학원 차영록 박사, 국무총리표창에 국립농업과학원 김미애 박사, 국립식량과학원 이봉춘 박사이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승은 박사를 비롯한 10인의 연구원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차영록 박사는 파일럿 플랜트 규모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정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재용 기자

전북개발, 무주택 도민의 내집 기회 제공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11개 단지 5218세대 공급·건립 중

전북개발공사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임대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말 설립된 전북 유일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자본금 846억원으로 출범했다.

창립 이래 18년간 임대아파트 8개 단지에 5,218억원을 투자해 4,191세대를

공급했고, 이중 1개단지 470세대를 2014년에 분양전환해 현재는 7개단지 3,721세대를 임대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말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832세대, 장수 및 임실 농어촌임대아파트 각각 100세대, 95세대 등 3개 단지에 사업비 2,013억원 규모 1,027세대를 착공해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총 11개 단지에 5,218세대를 공급했거나, 건립 중이다.

전북농협, 조경수 묘목사업 활력화 추진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24일 조경수 묘목사업의 활력화를 위해 협의회 조합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등으로 조경수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북농협이 발 벗고 나서서 사업 활력화를 위한 의견을 모은 자리로서, 실무추진위 운영과 선진지 벤치마킹, 농가조직화 및 판로 개척 등 조경수 판매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조경수 관련 사업은 전국에서 전북농협만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조경수 판매실적은 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성장했으며, 전국 총 판매실적 407억원의 80.8%를 점유하는 등 조경수 협의회 발족 이후 전북농협의 조경수 관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 협의회 임승규 회장은 "회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한 조경수 묘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창립자본금과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최근 7년간 당기순이익 매년 100억원 이상 달성 등으로 축적된 자본잉여금을 바탕으로 전북도민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꾸준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결과이다.

전개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임대주택 수요와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230% 범위내에서 2026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8개단지 3,140세대 정도를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함으로써 도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강태호 본부장은 "조경수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생산 현황조사 조차 힘든 상황이고, 체계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구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며,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의 2015년도 조경수 생산현황을 보면, 전북의 생산량은 1,600만본으로 전국 전북농협의 조경수 관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 협의회 임승규 회장은 "회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한 조경수 묘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구독문의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